

주제회의[사회적경제]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에너지파크센터

배경

기후위기는 생명권(생존권), 건강권, 먹고사는 생계권 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해와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성’과 기존의 기후데이터를 무력화하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직면한 공통의 위기이지만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차별적 발생은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전통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채식, 제로웨이스트, 지원순환 등의 환경적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적경제 방식의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지역 사회적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행동으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편중된 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 접근법과 함께 기후로 인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폭염, 한파, 장마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에서도 역할을 확장하기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기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례, 국내 아름다운가게의 ‘안전하게 여름나기, 아름다운 나눔보따리’사례 등을 통해 광주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목표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인권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경제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만든다.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지역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후취약계층 보호프로젝트’를 아젠다로 제안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삼는다.



시민 태양광발전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폭염, 한파, 폭우, 가뭄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기후취약계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방식의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2. 국내·외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와 방향
3. 우리지역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현주소
4. 기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제안
5.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 제안 및 구축방안

